

건전한 비판·견제...지역의 파수꾼으로



호남언론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견지해온 광주일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또한 크다고 봅니다. 지역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서는 광주일보이기를 기원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원합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 상임대표>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일간지되길



호남의 역사와 숨겨져 있던 대표 일간지로서,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일간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정보제공과 여론주도를 통해 지역의 의사소통과 문화발전에 기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주정민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청년에 희망주고 사회에는 대안과 감동을



멀티미디어 시대와 소통·정보의 통로가 다양해졌지만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매체는 신문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근현대사의 역사, 2만호의 역사를 쓴 광주일보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에 대안과 감동을 주는 기사로 새로운 역사를 쓰길 바랍니다. <최진희 동신대 블로그 기자>

농촌과 농업에 더 많은 관심 보여주세요



광주일보의 2만호 발간은 시·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도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돼 주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농촌과 농업분야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하며, 거듭 2만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반세기 함께 한 광주일보는 세상을 만나는 통로”

50년 애독자 서태석씨

“지난 반세기 동안 광주일보는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걸어온 제 인생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서태석(80)씨와 광주일보의 인연은 50년 전 광주시 서구 양동 북개삼가에서 옷장사를 하던 시절에 시작됐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때부터 구독해 온 서씨는 1960년대 중반 북구 중흥동과 동구 급남로 2가로 자택을 옮긴 이후 현재까지도 매일 광주일보를 애독하고 있다. 서씨와 광주일보와의 인연이 무려 50년 동안 계속돼 온 것이다.

스무 살 때 미군 구호물자 노점상을 시작한 서씨는 현재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공예품점을 운영하며 한결같이 사업가의 길을 걸어왔다. 서씨는 “일제 때 아버지를 잃고 열네 살 되던 해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장사에 뛰어들었다”며 “사업가로서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세상을 만나는 통로로써 그의 사업 여정을 함께 해왔다.

1980년 담양에서 도정(糶糶) 공장을 운영하던 서씨는 5·18민중항쟁을 지면으로

성공 위해선 세상 물정 알아야
웃장사하며 광주일보 첫 인연

지역 소식 심층 보도 등 저력
신문 통해 토론하며 자녀 교육
교수·사업가로 훌륭하게 자라
“광주일보는 가족과 다름없어”

접했다. 자식 같은 학생들이 군부의 총칼에 짓밟히는 참상만큼 마음 아팠던 일은 그해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문 발행이 중단된 것이었다. 그는 “신문을 10일 동안 받아볼 수 없었던 80년 5월은 제 눈과 귀를 닫은 시기나 마찬가지였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5월 광주의 아픈 기억은 서씨에게 현재 세월호 보도로 재현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부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아픔을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관련 기사는 한건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다.

서씨가 광주일보 지면 가운데 유심히 들여다 보는 분야는 지역면이다. 그는 “전북과 전남 22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남 인

사이드(Inside)’ 등 지역면을 제일 먼저 찾아 읽는다”며 “매일 3개 면에 걸쳐 지역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력은 광주일보가 구축한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광주일보가 무등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급남로 2가 시대를 열었던 2004년을 생생히 기억했다. 광주일보 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서씨는 “광주일보가 마치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아버지를 따라 광주일보 애독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서씨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을 봐야 한다”는 게 그가 줄곧 지켜온 신념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과를 시작하는 서씨는 신문을 통해 자녀를 교육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읽게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을 주고 받은 것이 그가 지켜온 교육 방식이었다. “광주일보를 교과서 삼아 학생 시절을 보냈던 자식들은 현재 지역에서 대학 교수,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자식에 이어 손자까지 보는 광주일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글·사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오전 6시 광주시 동구 궁동 자신의 가게에 출근하자마자 광주일보를 찾는다. 서태석씨와 아내 최숙경씨.

광주시, 상록회관 부지 매입 검토

도심 녹지공간 조성 여론 고려...실무 부서와 재원 마련 대책 협의

매입사에 수목 보전 요청도

광주시가 이미 매각된 광주 상록회관 부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상록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검토하면서 핵심으로 꼽히는 재원 대책과 관련, “부지 분할 매수 장기 계획을 제출하면 매입 조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

다”는 실무 예산 담당부서와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실상 상록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조건을 타진한 것으로, 지난 18일 실무부서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매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상록회관 부지 4만8952㎡(준주거지역 3만6730㎡·1종 일반주거지역 1만2222㎡)를 부동산 산재발업체 ‘DS네트웍스’에 매각했다. 당

시 매각 비용은 548억5700만원(토지 362억원·건물 186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 중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는 반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준주거지역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이 400%이고 건물 층수에 제한이 없다.

매각 사실이 알려진 뒤 아파트 1000세대 건축 계획 소문이 돌면서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심 녹지 공간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전남도입업시험장이 있었던 장소로 아름다운 소나무, 빛나무 숲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로 시민사회단체의 보존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최근 부지 매입사측에 수목 보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수목에 대한 기부채납 의견 등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의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향후 진행될 도시계획 용도 변경과 연계, 수목 보전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는 26일 ‘광주 상록회관 부지 생태·녹지현황조사 테스크 포스(TF) 팀’ 첫 회의를 열고 녹지 현황 조사 및 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정읍 메르스 의심환자 전남대병원서 격리 치료

27일 정읍에 신고 접수된 메르스 의심환자가 이날 오후 4시께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이날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20대 여성)씨는 이날 오전 전북도보건당국에 “지난 23일 중동지역을 경유해 입국했는데 감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4개월간 체류하다가 카타르를 거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스스로 의심 신고를 했지만 A씨는 가벼운 감기 증상 외에 메르스로 의심되는 발열 등의 증상은 아직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금속탐지기로 귀금속 찾아 팔았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전국의 해수욕장을 돌며 관광객이 분실한 귀금속을 찾아내 팔아치운 30대가 경찰서행. ○부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지난해 9~12월 심야 시간을 이용해 부산 해운대, 충남 대천, 전남 진도의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관광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9점을 주운 뒤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

○경찰청은 “귀금속을 계속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박씨를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금속탐지기를 구입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돌며 찾아낸 귀금속을 팔면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